

동북아 평화의 새 지평 모색한 '북경의 3일'

남북 불교정상화의 역사적인 만남

차로 3시간 거리면 만날 수 있는 남북불교 두 정상 수천리를 돌아 이국땅에서 마주 앉았다. "관문점 통해 만났으면 더 좋았을걸 그랬습니다" 4년전과 똑같이 건강해 보이십니다. '91년 LA에서 열린 남북·해외 불교지도자대회 이후 4년만에 다시 만난 월주스님과 박태호 조선 불교도연맹위원장이 마주 앉은 악수와 함께 나온 덕담. 이번 접촉에서 월주스님의 방북이 공식 합의의 밑거름이 되었고 남북 불교교류에 새 활기를 불어넣었다. 아울러 이날 법타·시현스님 등 4스님 방북초청장이 전달됐다. 월주스님은 "관문점을 통해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오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고 북쪽에서도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 23일 법타·시현·설승스님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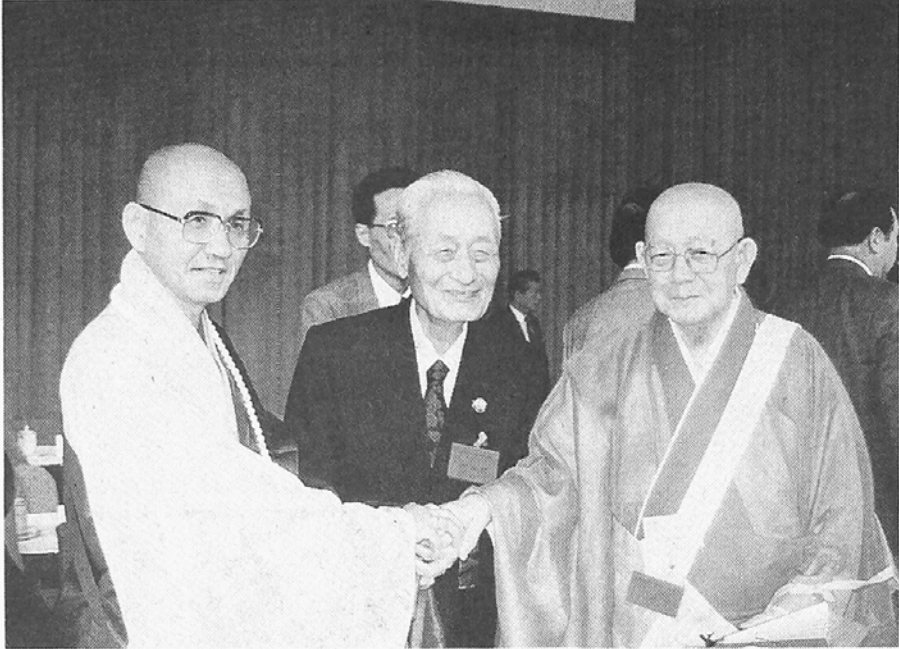
○23일 오후 5시 북경시 랜드마크호텔 서리별 식당에서 개최된 남북 실무대표단 회의.

법타·시현 등 4스님에 초청장 "다음엔 평양·서울서 만남이다"

박태호 심상선 류성철 남북 각 3인이 모인 자리와 24일 정오 월주스님이 동석한 자리에서 북측은 "통일을 위해서는 갖가지 장애를 뛰어넘어야 한다"며 "관문점 법회개최 여하에 따라 월주 총무원장의 능력을 보겠다"는 말까지 하며 8·15 공동법회의의 관문점 개최를 강력히 주장했었다. 그러나 조계종이 정치적 색채를 배제하고 순수 종교목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추진해야 하는 입장을 확실히 한 만큼 북측측도 어쩔 수 없이 실현구체적인 방안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오모임까지는 이같은 양쪽 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12시에 시작된 모임이 1시간 30분만에 먼저 장소를 나선 월주스님과 그 뒤 30분후 총총히 떠난 박태호위원장 등 북측대표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굳어져 있는 것이 양쪽의 입장을 잘 대변해 주고 있었던 것이다. 같은 날 저녁 6시 북경 민수공도자들과 순회법회를 개최한 바 있다.

박태호는 누구인가

박태호위원장은 76세로 지난 1980년부터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직을 맡아오고 있다. '학림(鶴林)'이라는 법명을 갖고 있으며 대선사로 불려진다. 해방전에 입산해 일본에 유학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분련 대표단을 이끌고 소련 스키링카, 몽골 등을 방문했고 지난 91년 10월 LA 등 미국 여러 도시에서 남북 및 해외 불교지도자들과 순회법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중일 3국 불교대표들이 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협력과 교류를 결의했다. 지난 22일 북경 국제회의에서의 월주스님(왼쪽) 조박초 중국불교협회장(가운데) 니키무리 일본불교협회장.

문화·정보 교류 인재양성 '한 목소리'

제1차 한·중·일 불교우호대회 성과

한·중·일 3국 불교계의 우호협력과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을 펼쳐기 위한 상설기구가 창립됐다. 북방불교의 주역들인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불교 지도자들이 우의를 다지고 협력을 도모하는 대규모 불교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일뿐 아니라 협력과 교류를 통해 인류평화에 이바지하겠다는 '불교우호교류회의'는 동북아뿐 아니라 세계불교 발전을 위해서도 획기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회의는 중국불교협회 조박초회장이 지난 93년 11월 일본에서 제안한 한중일 3국 불교간의 '황금유대'를 결성하자는 제안에 따라 수차례의 실무회담을 거쳐 결실을 맺게 됐다. '황금유대'란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후 다시 한국을 거쳐 일본에 전파되고 한국에서 다시 중국에 역영향을 주는 등 3국이 역사적으로 깊은 인연을 맺게 된 점과 관련 동북아의 문화적·정신적 연대의식을

북경선언 요지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중국불교협회 조박초(趙杪初)회장이 1993년 11월 일본에서 제안한 한·중·일 3국 불교간의 황금유대를 결성하자자는 새로운 구상에 대한 반응이며 3국 불교계의 오랜 세월에 걸친 공동의 염원이기도 하다. 본 회의는 한·중·일 3국 불교계 대표들이 불법을 호종하고 중생의 이익을 도모한 경험을 일상적으로 교환한다. 또한 양국 또는 삼국간의 불교문화 교류, 인재양성, 정보교환 등 여러분야의 항목과 계획을 토의 결정하고 공동의 관심사 기타 흥미를 갖는 문제들을 협의하며 아시아 및 세계평화에 진력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3국 불교계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연락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회의는 앞으로의 교류 및 협력에 있어 다음과 같은 분야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인재양성=3국 불교계는 교사와 유학생을 상호 교환하고 교재와 경험을 교류하며 인재 양성기지를 마련하는등 상호 편의를 제공하고 지원한다. △문화 학술 교류=선인들의 위

이어 두번째의 위치를 확고히 했다. 현수막에도 일본보다 먼저 기재되고 행사에서도 일본보다 앞서는등 한국 불교의 위상이 높아진 것도 천태종이 절강성 천태산 국경사에 조사전을 건립하는등 그동안 한국이 꾸준히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노력한 성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번 회의는 세가지 점에서 아쉬운 점을 남겼다. 첫번째는 북한과 대만의 참여가 배제된 점이다. 지 회의 전체경비의 상당부분을 한국과 일본 두나라가 부담한 것도 국가 형평성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22일 열린 인민대회장에서 만찬 식사비까지 1인당 60불씩 지불(대표단 30명은 제외)해야 하는 부담을 겪어야 했다. 30명의 공식 참가단원에 소수의 참가단원을 참여시킨 일본과는 달리 3백여명 가까운 관광객을 겸한 참가단을 동참시킨 한국은 종교를 미끼로 한

사상 처음 3국 회동... 교류확대 '황금유대' 기대 한국불교 위상 재확인... 북한·대만 배제 아쉬움

중국의 반대로 참여가 배제된 북한과 대만까지 참여시킬 수 있는 방도가 마련돼야 하는 것이 향후 3국 불교회의의 과제이다. 또 이번 회의는 개최당일 전날에도 일정이 자세하게 나오지 않고 기자회견 요청이 묵살당하는 등 주최측의 준비 소홀이 눈에 띄게 드러나 국제적인 행사에 서투른 중국측의 준비소홀이 목의 티로 지적되고 있다. 너무 회의 개최에만 급급한 나머지 이경숙 기자

노후를 편안히 ... "보리수 마을에서 부처님과 인연을"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 이루어진 보리수 마을

- 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최첨단 의료시설과 진료서비스, 온천수와 바닷물이 조화된 해수사우나, 헬스시설 등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 노인들의 정신적 풍요와 몸의 활력을 위해 노인대학, 레크리에이션 교실, 과수단지 조성 등 노인들을 위한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관광휴양지가 인접해 있어 편리한 교통을 이용하여 가족과 친지들을 언제든지 즐겁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 철저한 교육으로 전문능력을 갖춘 종사원들이 24시간 비상체제로 근무하여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의 봉사를 제공합니다.

보리수 마을 입주 설명회

- 일시
 - 1차 → 6월 9일(금) 오전 10:00 ~ 12:00
 - 2차 → 6월 11일(일) 오후 2:00 ~ 4:00
- 장소
 - 조계사 총무원내 문화교육관 (범종루 옆)

※ 1,2차 설명회는 이미 접수 마감되었으나 3차 설명회 개최가 6월 15일 전후로 예정되어 있으니 상담실로 전화·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4월 23일 80% 공경현장은 둘러보는 이사장 송철주 스님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시범사업 **보리수 마을**
상담실 ☎ (02) 733-3363, 733-0640~2